



성(性)은
생명 그리고 인생 전체와 결합하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성(性)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지요? 대학생에게 조사해 보니, '섹스', '즐거움',

'연애', '콘돔', '모텔', '야동', '쾌락' 등의 단어가 떠오른다고 하네요. 성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나는데, 왜 이런 단어들이 최우선으로 연상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 번 탐색해 볼까요?



고등학생은 수능을 치르고 그다음 해에 성인이 된다.

나도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음주였다.

성인이 되자마자 당연히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성관계도 성인이 되면 당연한 것처럼 각인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계기는 '마녀사냥'이란 TV 섹스 토크쇼를 본 뒤부터였다.

방송이 깔고 있는 전제가 '연애하면 성관계는 당연히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중매체를 통해 직접 전달되는 것 또한 문제인 것이다.

성관계를 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연으로 올리는 걸 보면서

'아, 요즘은 다 저렇게 하나? 저게 쿨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광호 베네딕도
(생명문화연구가 위지(爲之))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위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 '爲之'는 '知其不可而爲之' (논어 현문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한다.'의 마지막 두 글자를 따온 것으로, 필자의 호(號)이다.

교수님께서 **대중문화는 청소년에게 섹스 마케팅을 한다고** 하셨다.

대중문화가 뿌려주는 비를 흠뻑 맞으며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다.

대중문화가 섹스를 이용한 판매 전략을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왜 그런 마케팅을,

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 하는지 의문이 또 생기게 되었다.

수업을 들으면서 성이 우리 인생 전체와 결합하여 있다는 성의 연관 구조가 가장 인상 깊었다.



성은 인생 전체와 결합하여 있다.



성교육에서 피임교육보다 책임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성을 쾌락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가 성관계를 단지 사랑해서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뒤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에 대해선 알지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점에 대해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다.

교수님의 말씀 중에서 공감 가는 게 하나 있었는데,

‘성=쾌락’이라는 단절된 사고가 사랑의 의미를 변질시킬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전에는 ‘사랑을 나눈다’고 하면 단순히 알콩달콩하고 다정한 모습을 상상했었지만, 요즘은 ‘사랑을 나눈다’ 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성관계를 했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말이 곧바로 섹스와 연결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때에 이 수업은 성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싶은 나의 선택에 확신을 강화해주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성(性)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며 그것은 사회와도 연결되어있다.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특히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여성은 더욱 힘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의 체계가 사회와 개인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생명의 숭고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대중문화를 통해 쾌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기 전에

배워야 했다. 대학에 와서야 듣게 된 이 수업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기회를 내게 선사해 주었다.

성(性)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왜 ‘섹스’, ‘즐거움’, ‘연애’, ‘콘돔’, ‘모텔’, ‘야동’, ‘쾌락’ 등의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는데, 이 시대의 문화가 여러분에게 성(性)과 사랑을 쾌락으로만 이해하게끔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대중 매체는 가랑비 수준이 아니라 폭포수입니다. 이 폭포수를 누구도 피할 수 없

으므로, 많은 사람이 마른 옷을 입는 산뜻함과 상쾌함을 더는 기억하지 못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성(性)이 생명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새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 버린 스마트폰과 TV 그리고 인터넷을 잠시 버리고, 진실을 알려주는 제대로 된 선생님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만나야 합니다.

원래 나는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성을 숭고한 것으로 여기고 아끼는 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대학에 와서 들은 강의가 내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늘어나는 미혼모와 버려진 아이들, 아기와 엄마를 버리고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아빠들.

대학에 들어와서 자유의 시간이 찾아온 이상 뉴스에 나오는 소식이 나의 얘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의 쾌락으로 평생을 후회할지도 모를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수업 과제를 하려고 보육원으로 봉사 활동을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봉사 시간 채우고 와야겠네!’ 하는 생각뿐이었고, 놀다 올 계획이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어떻게 버려져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다.

여섯 명의 갓난아기가 모두 미혼모로부터 버려진 것이었다.

나보다 어린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없게 되자 보육원에 사실상 버린 것이다.

순간의 쾌락으로 세상에 나와 사랑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키워지는 아이들을 직접 돌보니 더욱더 생각이 바뀌었다.

모든 존재는 사랑받아 마땅한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취급을 받은 것이다.

보육원 봉사를 하면서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수업을 통해 미래에 나의 일이 될지도 모를 상황을 예방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살면서 보육원의 예쁜 아기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대학에서의 성교육 수업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내 결심을 지켜나갈 것이다.

”

남녀의 성적 결합이 생명과 직결되고 그래서 성(性)이 인생 전체와 결합하여 있다는 사실은 특정 종교의 독단적이고 억압적인 도그마(dogma-증명이나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교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성관계는 인생 전체를 놓고 심사숙고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전통적인 종교나 윤리 도덕에서는 혼인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는 남녀 관계가 혼인이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누구와 결혼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장차 제 아내가 될 사람을 벌써 배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 대학생이 한 대답입니다. 이 청년처럼 말하면 주변에서 비웃음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 지금 사회입니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지는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선생님도 주변 분위기에 등 떠밀려서 성관계의 문턱을 타의로 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관계에 대한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하는 청소년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나는 절대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심사숙고적 태도를 지지한다.

성(性)은 단지 쾌락의 한 수단일 뿐 아니라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자 능력이다.

성(性)을 쾌락의 수단만으로 생각하고 피임만을 믿으며 자유롭게 성관계를 즐기는 현 사회의 풍조는 잘못된 것이다.

이는 미디어 때문이다. 우리는 미디어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모든 사고를 지배당하고 있다.

미디어가 성(性)을 쾌락으로만 표현하고, 연애하면 성관계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성(性)은 생명의 시작이자 인생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도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사랑하면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책임'이 빠졌기 때문이다. 책임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쾌락으로만 경도된 대중 매체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주체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업 중 마시멜로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데,

당장 내 눈앞의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더 많은 마시멜로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를 성(性)에도 적용할 수 있다.

쾌락 이전에 성(性)은 생명이다.

따라서 성(性)이라는 마시멜로를 당장 먹지 않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 내가 임신을 했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도 기쁠 것이다.

”

사도 바오로께서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이고,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2티모 4:3-4)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 모아들이고 교사들'이란 성을 쾌락의 수단으로만 보여주는 문화산업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은 진리'는 성이 생명 그리고 인생 전체와 결합하여 있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돌아서서 가고 있는 신화'는 욕망을 만족하게 해 주는 거짓말입니다. 가톨릭교회에 속한 청소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길! 생명과 책임의 길! 정결의 길! 그 길로 오세요. 그 길이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이며, 남녀가 결합하여 함께 걷는 삶의 길 곳곳에 하느님이 마련한 기쁨을 넘치도록 맛볼 수 있는 복된 길입니다.